

'90년대와 인스턴트 문화

〈편집실〉

90년대 이후 전개될 생활패턴은 고급화와 함께 한번 쓰고 버리는 인스턴트문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식주의 인스턴트화는 부정적인 면도 있으나 편리함을 추구하는 현대 생활에 있어서 수요자의 구미와 맞아 떨어져 그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하고 앞으로 이용범위가 계속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인스턴트제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의류

쾌적과 편리함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욕구에 따라 디자인과 소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천연소재의 면, 모직, 실크 등을 이용한 고급 옷감의 수요증가와 더불어 일상복이나 운동·레저 등에서는 첨단소재를 이용한 1회용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속옷같은 기초의류를 중심으로 한번 쓰고 버리는 인스턴트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제품인 여성용 1회용 팬티가 연간 1억장 이상 내수로 공급된다고 한다. 이 제품은 슈퍼마켓, 화장품 가게나 목욕탕 등 어디서나 살 수 있어 나일론스타킹 처럼 한번 쓰고 버리는 편리함을 준다.

이밖에도 신소재를 이용한 야외용 잠바 및 모자, 환자복 및 수술용 가운 등의 의료용품, 1회용 비닐 우의,

1회용 각종 장갑 등이 있으며, 1회용 종이기저귀는 이제 아기를 키우는 주부들에게는 필수품이 되어 매년 2백억원 이상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 식품

가장 낮은 라면류와 통조림 등 앞으로의 개발이 무한한 품목이 바로 식품분야이다.

슈퍼마켓에 가면 김치, 김에서부터 오징어채, 새우, 방어, 연근, 멸치, 콩자반 등 수십가지의 각종 조림이 있다. 또한 전자레인지와 대형냉장고의 폭넓은 보급은 반조리식품과 냉동식품류 등 식품의 산업화를 끌고 왔다. 따라서 천연향미료, 천연조미료, 천연색소, 과일가루 등의 천연식품을 정제한 것과 감자 등의 천연식품을 가공한 가공식품류, 각종 음료 등이 인스턴트 식생활을 촉진한다. 심지어는 떡, 약과, 과일, 각종 나물류 등을 세트로 포장 판매하는 기성품제수까지 등장하여 포장만 뜯으면 곧바로 제사상에 올릴 수 있도록 판매하는 곳도 생겨났다.

그러나 타분야와 달리 식생활의 인스턴트화는 안전성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제조시 첨가물의 유해여부는 물론 적정량의 사용 여부, 신선도, 냉동 및 냉장, 반조리식품의 완벽한 콜드체인시스템 구성 등 보관 유통상의 안전성 여부, 식품의 원료와 첨가물의 정확한 표기, 제조 및 유통기간의 표시 등 제조와 유통과정의 신뢰

감을 주어야 한다.

• 기타 용품

가스라이터, 종이컵, 칫솔, 얼음봉지, 비닐장갑, 가스매트, 여행용 세면도구, 레이저용 포크와 나이프, 1회용 만년필, 1회용 주사기, 1회용 면도기, 야외용 숯불 등 다양하다.

1회용 비닐장갑은 김치나 나물을 버무리거나 머리염색 등에 자주 이용되며, 냉장고에서 식용얼음을 얼릴



때 얼음크기가 일정하게 나뉘지도록 해주는 비닐백도 있다. 폴리프로필렌 내열수지로 제조된 1회용 수저는 100℃까지 견딜 수 있으며, 플라스틱 재료로 만든 나이프와 포크, 수저도 등산이나 낚시 등 야외회에 빼놓을 수 없고, 폴리스틸렌단열재로 내부를 감싸 일정기간 보온이 유지되도록 제작된 1회용 도시락도 있다.

연속비닐쓰레기통은 비닐봉지를 30매씩 연결해 일정용량이 차면 뜯어



버릴 수 있다. 오븐에 케이크나 과자를 구울 때 또는 도시락에 반찬을 나눠 담을 때 편리한 알루미늄 소재를 이용한 컵도 있으며, 요리과정에 음식물이 넘쳐흘러 카스레인지를 더럽히지 않게 만든 가스레인지형 은박지 매트도 있다.

이밖에도 유흥음식점에서 자주 보는 테이블 냅킨도 색상이나 디자인을 다채롭게 변화시켜 가정용으로도 많이 팔리며, 종이컵에서 고급화시킨 컵받침, 접시, 냅킨 등이 피로연이나 회갑연 등 잔치집에서 인기가 좋다. 이들 제품은 종이 외에도 플라스틱, 은박지 등 종류도 다양하다.

1회용 카메라가 등장했는가 하면 1회용 종이비누, 1회용 연료 등이 있다.

이들 1회용 상품은 대량생산에 의한 획일성, 단순성, 저렴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으나 점차 고급스러우며 안전도를 높힌, 그러면서 개성을 갖춘 1회용 상품의 공급으로 새로운

인스턴트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보여진다.

• 문제점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는 가정생활의 패턴을 바꾸어 놓았다. 부담없고 쓰기에 편리한 1회용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그 종류도 다양해 우리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1회용 상품이 낭비용조를 조장하고, 쓰레기공해를 일으킨다는 부정적인 면도 간과할 수가 없다. 특히 1회용 상품의 특성상 쓰레기 재생처리가 불가능한 품목이 많아 자원의 낭비는 물론이고 쓰레기처리는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니다. 1회용 상품중 그릇 종류만도 하루 5천내지 6천톤이 버려진다고 하니 편리함 다음에 오는 이들 폐기물의 처리는 새로운 문제점으로 다가오고 있다. ☉

